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 현상에 대한 연구*

최선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요약

이 연구는 형식학습에 강한 선호를 가진 학습자 집단과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대학 '공부 중독'의 성격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에서 6번째 학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80대 노인학습자에 대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학 '공부 중독'에서 '공부'는 학생 신분이 되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공부에 중독된다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가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전환되어 작동하는 자기통제감과 제도화된 가치를 통한 자기 삶의 정당화, 그리고 노인기 무위의 공포로부터 도피하여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됨으로써 얻는 안도감과 안정감에 대한 중독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부 '중독'이 실제로는 노인기 공허감을 잊기 위해 중독 상태에 빠지고자 하는 자기 최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 및 결론파트에서는 이러한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 현상을 학력과 형식교육기관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한국의 학력주의와 한국 노인기가 놓여있는 사회적 조건과 연결시켜 해석하였고, 제도화된 학습자 개념과 학위중심 평생학습패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 공부 중독, 노인학습자, 학습관리장치, 학위중심 평생학습패턴

I. 서론

인간의 생애에 걸친 학습은 제도의 자장(磁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성인학습자 연구는 성인기를 '제도화된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의 개별화'를 이루는 시기로 규정하며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제도적 자장과 인간의 학습의 복잡한 역동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다.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는 성인을 자신의 학습욕구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주체로 부각시키는 일에 주력하면서, 지나치게 인간의 자율성과 행위자성을 강조하

* 이 연구에서 분석한 면담자료 일부는 연구자가 정연희 외(2015)의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 수집한 것임을 밝힘. 추가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의로 발전시킨 연구임.

† 제1저자: 최선주(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jchoi@nile.or.kr)

는 이상주의적, 근대 관념주의적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러한 한계는 노인학습자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김태중, 전주성, 2014; 김효경, 윤창국, 2014; 이경희, 박성희, 2009).

정민승(2010:22)이 지적한 대로, 성인을 단일하게 규정하고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학문의 설명력을 떨어뜨린다. 마찬가지로, “연령 말고는 동일성을 찾기 힘든 행위자들을 노년이라는 기준만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강제”(박경숙, 2004:102)하는 연령주의에 기반하여 ‘노인학습자 일반’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학문적 설명력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에, 정민승(2010)과 Lee(2003)는 성인학습자를 성, 인종, 계급, 학력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범주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간의 학습에 대한 의식과 행위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교육제도에 주목하며, 학습자 범주화가 교육제도의 속성과 학습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간의 학습은 개인의 주체성과 행위자성 뿐만 아니라, 학습을 둘러싼 사회적 학습관리장치 속에서 이루어진다(김신일, 2005). 학교는 제도화된 형식교육기관으로 구조화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수-학생 관계, 학점, 학위 등 정교한 관리 장치를 통하여 인간의 학습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화시키고 학습자의 자아를 형성해나간다(한승희, 2009). 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인간행동의 유형이고, 제도 밖의 학습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류할 수 있는 규범과 상징을 제공한다(이종일, 2012; 정경순, 2006; Barley & Tolbert, 1997). 교육제도는 구체적인 학습관리장치를 통하여 인간의 학습에 대한 의식과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견인하며, 학령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학습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존의 학습자연구의 주류담론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노년기에도 여전히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학습을 특별히 선호하는 학습자집단이 존재한다. 형식학습에 대한 선호와 형식교육기관의 제도적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에 다니는 노인학습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5.10.11.).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노년층이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팽창을 주도하였고(한승희, 이은정, 2016; Jamieson, 2007), 우리나라 역시 전 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대학에 재진입하는 노인의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은 대학을 다니며 학생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을 최고의 노후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며, ‘노년에 부는 열풍 바람’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신문 기사에 소개된 노인학습자 중에 한 명이 A원격대학에 다니는 80대 이재원(가명)이다. 그는 17년째 전업학생으로 A원격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다섯 개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여섯

번째 학위 과정 중에 있다. 이재원은 현재 전공에서 학위를 마치면 또 다른 전공 학위에 도전하고,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계속 대학을 다닐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재원은 자신이 계속 대학에 다니는 이유를 대학 공부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이재원으로 대변되는 형식 학습에 강한 선호를 가진 노인학습자 집단과 대학에서의 ‘공부 중독’ 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공부에 중독되었다고 할 때,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에 ‘중독’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공부 중독과 형식교육기관의 제도적 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형식교육기관 중에서도 왜 하필 ‘대학’인가?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인기 형식교육기관에서의 공부 중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에 재학 중인 만학도 혹은 노인학습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열등감의 극복이나 정상성의 획득과 같은 대학 재학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나 자아성찰과 자신감 획득 등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며(김태종, 전주성, 2014; 엄미란, 최은수, 2012; 이정희, 안영식, 2007; 홍아정, 2010), 대학에서의 학습을 다루지만 형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제도적 속성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이재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기 ‘공부 중독’의 성격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노인기가 놓여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다양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력주의와 형식교육기관이 우위에 있는 ‘스쿨링(schooling)’이 지배하는 사회(Illich, 2004) 조건과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에서 ‘공부’의 성격은 무엇인가? ‘공부 중독’의 실체는 무엇이며, ‘공부 중독’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시각

최근 평생교육분야 연구자들은 기존의 노인교육에 대한 주류담론이 복지위주, 인적자원개발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신미식, 2007; 박응희, 이병준, 2009; 박성희, 2010). 그렇다면, 교육학적 관점에서 노인학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응희와 이병준(2009:30)은 “노인

들의 도야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노인의 자기 성찰성을 포함한 주체적인 능력”을 강조하였고, 박응희(2009:139)는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지향을 교육학적 탐구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공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완성학습’(이경희, 박성희, 2009), ‘비판적 제라 고지’(박성희, 2010), 노인기 ‘확장학습’(김효경, 윤창국, 2014), 노인기 ‘의례적 학습과정’(장소은, 이병준, 2014), 초고령 학습자의 ‘전기학습’(김태종, 전주성, 2014)에 대해 다루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노인을 주체적 학습자로 부각시키고, 학습을 통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학적 관점’에 따른 연구가 드러낸 노인학습자의 모습은 전제아, 김원경(2014:1)이 지적한 “노인학습자를 결핍된 존재로 보는 편향적 시각을 탈피”하는 과제 수행에서는 상당부분 성공했지만, 문제는 위의 연구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획일화’를 비판한 후 이번에는 노인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로 ‘긍정적 획일화’를 하는 오류를 다시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지향 속에서, 학습을 제약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견인하고 구조화시키는 제도적,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제도와 학습자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학습패턴은 사회구조적, 제도적, 개인의 의식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Rubenson, 1998). 인간 학습에 대한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제도는 교육제도이다. 제도는 사회적 행위를 제한 혹은 가능하게 하는 규칙 체계이자, 행동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류할 수 있는 행위규범과 상징이기도 하다(Barley & Tolbert, 1997). 다시 말해, 제도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인간 행동 유형이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현실구조(structure of reality)로서 개별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환경으로 작용”(정경순, 2006:4)한다. 또한, 교육제도는 ‘경계’ 안과 밖에 속하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다르게 대우한다. 이처럼, 교육제도는 인간의 학습에 대한 특정한 의식과 행위를 유도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사회적으로 학습을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해나간다.

2. 형식교육기관을 선호하는 학습자집단

학교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이자 형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형식교육은 매우 제도화되어 있고 관료적이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뻗아가는 제도적인 단계로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학점, 학위, 수료증 등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Schugurensky, 2000:1). 이처럼 형식교육은

그 안에 학습을 관리하는 정교한 학습관리장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기 및 노인기는 이러한 형식교육보다 일터나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의 비형식 혹은 무형식 학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 어떤 노인학습자들은 특별히 형식학습을 선호하고,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학습의 장으로 제도화된 형식교육기관인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왜 어떤 성인 혹은 노인학습자들은 형식학습을 선호하는 것일까? 여러 학습의 장(場) 중에서 특별히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Belzer(2004)는 어떤 성인학습자들은 교사가 존재하고, 숙제가 부과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만 '공부'로 인식하고, 형식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에서 혼란과 갈등을 느끼며 교육 참여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일정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성인기 형식학습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선주(2013)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익숙해진 학습패턴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상당한 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령기 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학습자의 형식학습에 대한 선호의 중심에는 '학생 되기'가 놓여있다. '학생'으로 대우받고, 숙제를 해내고 교사에게 칭찬받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뒤늦게 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정연희, 정혜령, 최선주, 2015).

대학에 다니는 노인학습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대학 재학이 갖는 의미와 대학에서 학습을 통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고졸이라는 열등감의 해소 및 대학 학위라는 인생의 목표 달성(신미식, 2002; 엄미란, 최은수, 2012), 한국사회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대졸 집단에 포함되어 정상성의 확보(홍아정, 2010) 등 대학이 갖는 상징성과 타인과의 교류 등을 통한 삶의 활력 및 자아 성찰 등 긍정적 삶의 변화가 주로 부각되었다(김태종, 전주성, 2014; 한상길, 2011). 이 연구들은 '대학'에 다니는 노인들의 학습에 주목하였지만, 대학이 갖는 제도적 성격,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적 속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정희와 안영식(2007:101)은 만학도의 대학생활을 분석하면서 기관·제도적 요인을 언급하였지만, 기관·제도적 요인을 학교시설과 장학혜택으로 협소하게 규정하여, 제도적 학습관리장치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Helterbran(2016), Jamieson(2007), Scala(1996) 등의 연구는 형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제도적 학습관리장치에 일부 주목하였다. 대학은 학위 취득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공해주고 강의, 과제, 시험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일정한 시간적 구조를 제공하며, 노인기에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과 타인에게 입증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Merriam(2004)은 과거 학교 학습에서 성공한 고학력 노인들이 노인기에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생애사적인

자신감, 학교라는 제도화된 공간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학습에 대한 친숙함 등과 관련하여 Vaill(1996)은 ‘제도화된 학습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제도화된 학습자는 형식학습 환경 속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이러한 조건을 선호하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Vaill은 이 개념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노인기 대학이라는 형식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중심으로한 ‘공부중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숙고해볼 만한 개념이다. 교육체제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우월한 입지를 형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인기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3. 노인학습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노인기 학습패턴은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노인들에게 노인기는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49.6%로,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OECD 노인 빈곤율이 12.6%인데 비해 한국은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동아일보, 2015.5.23). 문제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나이 들을 관조하고 향유할 사회문화적 자원 역시 매우 빈곤하다는 점이다. 노인을 결핍과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지양해야하지만, 노인이 처해있는 실제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직시와 이해는 중요하다.

노인을 ‘학습자’로 명명하기 전에, 평범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근재(2014:8)는 탐골공원과 종묘시민공원 광장의 노인들을 참여 관찰하며,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군집이 “잉여의 존재로 퇴적 공간”에 쌓여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였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이전인 1960년대만 해도 노인들은 사회적 노화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장치로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경작할 토지를 잃고 세계화 시장 체제에 노동기계의 부품으로 편입이 본격화된 후, 사회적 노화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났다(오근재, 2014; 장경섭, 200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를 뛰어넘는 “축진된 노화”이자, “상품화되고 물화된 인간이 그 쓸모를 잃고 시장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과정”(오근재, 2014:15)으로, 부유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르신들은 누구랄 것 없이 고독하고 쓸쓸”(오근재, 2014:10)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노화에 따라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정경희, 2003). 그런데 젊은 세대 중심의 소비사회와 후기산업사회는 육체적 쇠락이나 죽음과의 대면 자체를 회피할 뿐, 노인기 삶을 지탱할 문화적, 영적인 자원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정진웅, 2003).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고양되고 드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자원은 매

우 취약하다(김찬호, 2009).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노인들의 삶과 학습이 구성된다.

자아를 갱신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문화적, 심리적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열악함과 가족관계의 증발까지 중첩될 때 노년은 지옥에 다름 아니리라.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허물어 질 때, 늙음은 차라리 저주가 된다(김찬호, 2009:200-201).

대학은 노인기에 유력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고학력 노인들은 대학으로 돌아가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대학에서의 학습은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다른 노인’과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정경희, 2003:318)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노인기 학습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과거 학습경험의 성격과 현재 한국사회의 학습을 둘러싼 에토스이다. 평생학습담론의 부상과 다양한 학습기회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교육기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학력주의적 학습의 위계가 작동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형식 교육기관 안에서의 공부 중독 현상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국사회의 노인기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과 학력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III.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 :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는 노인기에 대학이라는 제도화된 고등교육기관에서 형식학습에 몰입하는 노인학습자의 '공부 중독' 현상의 성격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보통 시간과 공간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를 지닌 단일 혹은 복수의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reswell, 2007). Yin(2003)은 사례연구를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로 규정하였고, Stake(1995)는 단일한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규정하였다. Merriam(2009)은 사례연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사례가 가지는 복잡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로

규정하며, 사례연구의 특성을 구체성,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서술성,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발견성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 수가 아니라 사례가 갖는 독특성과 전형성이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6번째 학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80대 중반의 이재원을 노인기 형식교육기관을 기반으로 한 ‘공부 중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았다. 이재원이라는 사례를 통해 노인기 ‘공부 중독’의 맥락, ‘공부 중독’의 성격과 지속 메커니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사례연구는 자료 수집에 있어 별도로 특정한 제한은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한다(Merriam, 2009). 이 연구는 심층 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1년 반에 걸쳐 4차례 이루어졌다. 면담은 매회 2시간씩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면담 시, 이재원은 연구자에게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을 증명하는 대통령 직인이 찍힌 임용장 사본, 본인이 운영했던 작은 무역회사 명함, 6·25전쟁 호국영웅기장증 사본,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 사본 등을 건네주며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면담을 통해 A원격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하루 일과, 구체적인 공부 방법, 공부를 지속하는 이유, 노인기에 대한 의견 등 현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년시절 가정 배경,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습 경험, 성인기 일 경험 등 생애 자료도 폭넓게 수집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여준다(Yin, 2003). 면담자료 외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사, 연구참여자의 면담에 나온 전시대학, 근무했던 정부기관, 종사했던 사업분야에 관한 신문기사 및 학술자료, 연구참여자가 보는 교재와 문제집 일부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공부 일정을 기록한 달력과 진도표를 허락을 받고 사진기로 찍어 자료로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매일 학습하는 건물에서 면담이 이루어져 현장 관찰을 통해 학습공간의 분위기, 고정 책상 위치, 책상에 붙여놓은 문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휴게실로 들어오는 동료들과 연구참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그 중 일부 동료는 연구자에게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연구자가 연구노트에 즉시 메모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원의 다각화를 통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면담 후에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용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이란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유기웅 외, 2012:245)이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Merriam, 2009)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이름을 붙이는 코딩 작업, 코딩된 자료를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구성된 범주가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원래 자료에 비추어 검토하는 범주 확인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공부 중독의 성격과 의미의 핵심 주제로 자기의 테크놀로지, 구별 짓기를 통한 삶의 정당화, 제도가 주는 안정감, 자기 최면 4가지를 도출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인 이재원은 80대 중반이다. 60대 말부터 A원격대학에 전업학생으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일본학과를 포함하여 5개 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6번째 학위과정 중에 있다. 현재 전공에서 학위를 마치면 또 다른 학과에 학사 편입하여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17년째 명절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지역학습관에 나와 전공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재원은 1930년대 평안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는 금광 사업으로 큰돈을 벌여 집안이 부유하였다. 조부는 당시 전국에 하나밖에 없던 중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다.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농업학교를 나와 관리를 하였고, 두 명의 삼촌은 일본 동경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재원은 어릴 적, 삼촌들이 방학 때마다 가져다주는 외국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고, 1945년 해방되던 해 조부와 함께 월남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40년대 말 명문대 수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군에 입대하였으며 3주 훈련을 받고 통역장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군 통역장교로 근무하였다. 휴전이 되었지만, 대학생들은 바로 제대시켜주지 않아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대신 전시 연합대학이 개설되어 속성으로 교육과정을 밟고,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증을 받았다. 그는 전쟁 현장에 있었지만, 전쟁 참여 경험은 그에게 별다른 트라우마를 남기지는 않았다.

전역 후 당시 군사정부가 군인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채용하던 흐름을 타고, 그도 정부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어서 고민하던 차에, 수출호조에 힘입어 무역사업이 번창한 형의 동업 제안을 받고 이재원도 무역사업에 뛰어들어 40-50대를 바쁘게 보냈다. 60대는 형과 독립하여 일본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였고, 일본회사와 거래하다 일본어를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던 중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 A원격대학 지역학습관 간판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일본학과에 등록을 하였고, 곧 며느리에게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고 전업학생으로 17년째 대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IV. 대학 ‘공부 중독’의 성격과 의미

1.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와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재원은 매일 혼자 아침을 맞는다. 주스와 쌀 과자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온다. 집에 머느리와 손자가 있지만, 이재원이 집을 나갈 때도 따로 나와 보지 않는다. 그는 경로우대권으로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40여분 걸려 A원격대학 학습관에 도착한 후, 하루 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A원격대학에 출근하여 전공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덧 17년이 흘렀다. 그도 매일 지역학습관으로 “출근”하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자주 있다. 70대까지는 견딜만했지만, 80대 중반에 접어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피곤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다. 그러나 집에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누워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문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몸이 좀 힘들어도 집밖으로 나서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일어나 A원격대학 학습관으로 향한다. 집안일을 도우면서 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여성 노인들과 달리, 남성 노인은 집밖으로 나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압박감을 훨씬 많이 느낀다. 80대 노인 이재원은 자신에게 갈 곳을 주고, 자신을 할 일이 있는 사람, 나아가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A원격대학에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 이재원은 17년 동안 A원격대학 전업학생으로 다니면서, 자신이 A원격대학 공부에 “중독” 되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아니 나는 여기 중독이 됐다니까. 17년째니까 중독이 됐어. 형은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래. 어떻게 거기 학교를 매일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내 책상위에 캘린더가 있어, 거기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간다고 매일 꼭 적는다고.

이재원의 공부 중독은 ‘A원격대학’라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는 공부에 중독되었다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여기” 즉 A원격대학에 중독되었다는 말도 종종 사용하였다. 그의 공부 중독은 노인기에도 이어지는 학습에 대한 열망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재원은 특별히 ‘학교’를 좋아한다. 그가 유독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는 학습을 제도화한 의도적 교육기관으로 정교한 학습관리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공신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입학 및 졸업 기준, 커리큘럼, 이수 학점, 시험, 장학금 등

학사관리 장치를 통하여 학습의 목표부터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까지 통제하며 체계적으로 학습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제도적 학습관리 장치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매우 수월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가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Foucault, 1997)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시험이 있다.

학교에 말이야,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6과목 하게 돼있어. 중간시험 6과목, 기말시험 6과목, 12과목 아니야? 한 달 반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계속 시험의 연장이야. 시험 준비를 해야 돼. ... 앞으로 한 달 내에 6과목 시험이 있어. 내가 계획을 다 짜. 오늘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매 학기 공부 계획이 다 돼 있어. 17년 됐으니까 그거는 내가 도사지. 힘들지 않지. 방학 때는 또 노느나? 아니고, 연습해야 하잖아. ... 그러니까 full time busy (웃음) A원격대학 좋아. 없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없으면 어디 가서...(뭘 하겠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시험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끌고 가는 공부는 '매뉴얼화된 공부'이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매우 정련된 형태로 주어진다. 매뉴얼화된 공부에서 학습자에게 남겨진 것은 공부 계획 세우기와 계획 달성도 확인을 통한 자발적인 자기관리이다. 이재원은 중간·기말 시험을 기준으로 한 학기, 한 달, 한 주, 하루 등 장·단기공부 계획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짜는 바로 그 일에 "도사"가 되었다. 공부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연구자가 면담을 하러 가면 연구자가 찾아와서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몇 과 중에서 한 과는 못하게 되었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이재원은 공부 계획을 달력과 별도의 수첩을 통해 관리하였다. 자신이 세운 공부계획에 따라 인터넷 강의 시청, 교과서 읽기, 워크북과 기출문제 풀기 등을 반복하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17년간 그가 익숙해진 것은 시험 일정에 따라 공부계획을 세세히 짜고 그 계획을 달성해냄으로써 자아를 지키고 관리한다는 그 통제감이다. 그 통제감은 학습에 있어 통제된 자기주도성, 즉 자기규율성(self-regulation)이다.

그에게 학교라는 형식교육기관 안에 장착된 학습관리장치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붙드는 구체적이고 긴급한 자기관리장치이다. 시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험과 실버장학금과 같은 장치는 긴장감과 압박감, 도전감과 성취감 등의 심리적 효과를 불러 일으켜 자신을 동력화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재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장학금을 타야만 학업을 지속할 상황이 아니었다. 장학금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시험제도가 좋아. (좋으시다구요?) 공부를 해야지. 시험 봐야하니까. 시험 제도, 그게 나를 몰고 가. 공부하도록. 그리고 실버장학금이라고 있어. 공부 준비 안하면 그거 못 타. 40만원 못 타. 그 압박감이 있어. 그게 공부를 끌고 가는 힘이 된단 말이야. 이번에 내가 이만큼해서 장학금 받았다 이런 거.

이재원이 A원격대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습관리장치를 자기 테크놀로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인기 공부 중독은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입힐 수 있지만, 노인기 “캠퍼스에 부는 열공 바람”의 표면 뒤를 살며시 들추어 보면, 학교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적 자기관리장치의 미묘한 결합이 자리 잡고 있다. 공부 중독이 학습이라는 의미와 직접적 관련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노인기에도 여전히 바쁘고 유능한 자아로 지속적으로 자신에 작업을 가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로서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제도화된 장치에 의존하여 자신을 뻘뻘한 일정에 붙들어 매면 뭘수록,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학습자로서의 자립적인 힘이 약화되고 자아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재원은 제도화된 가치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2. ‘공부 중독’ 삶의 정당화 : 제도화된 가치에 기반한 구별 짓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문화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Kaufman, 1986). 인간이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떤 식으로든 격을 나누고 가치를 매긴다(김찬호, 2014:12). 반상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신분제가 해체된 후, 한국사회에서 사람을 서열화하는 핵심 기제 중에 하나는 학력과 학벌에 따른 구별 짓기이다. 이재원도 교육과 학습을 둘러싼 제도화된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재원은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한다. 그는 오전에 A원격대학 학습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재향군인회 회관에 자주 들린다. 그 회관에 모여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TV를 보고 있거나 바둑과 장기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이재원의 눈에 그들은 무척이나 한심해보였다. 이재원은 그곳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고졸’이면서 대학 공부할 생각이 없는 장교 출신 노인을 보며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강조하였다. 이재원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과는 달리 공부의 맛이나 가치를 모르는 “종이 다른 사람들”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야. 인종이 달라. 아주 인종이 다른데, 재향군인회 거기 중령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보고 무슨 대학 나왔어? 이랬단 말이야. 장교니까 무슨 대학 나왔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나왔대. 요새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대학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A원격대학 다녀. 여기 등록금 싸다고. 근데 이 사람 표현을 잊지를 못해. 자기는 암만 돈을 많이 주더라도 공부하는 안 합니다. ... 내가 인종이 다르다고 그래. 대학을 나오고도 또 대학을 가겠다고 악을 쓰는 판에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말이야, 달라.

학력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별 짓기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을 계속 다니는 자신의 삶에 정당성과 우월감을 부여해준다. 학력 위계에 따른 구별 짓기는 학벌에 따른 구별 짓기로 심화되기도 한다. 똑같이 A원격대학을 다니고 있더라도, 그는 A원격대학 학생들과 자신을 구별 짓는다. 그는 A원격대학 학생들의 실력을 폄하하고, 자신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머리가 좋지 않는” A원격대학 학생들보다 못하겠느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수에 대해서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 온 대단한 사람들로 격상시키며, 자신이 그런 사람의 “명강의”를 듣는다는 점에 무척 만족스러워하였다.

교수들이 대단해. 불문과 교수가 7-8명 되는데 물론 다 서울대학이고, 불란서에서 학위 받았고. 그런 사람들 인터넷 강의라고. 그거 듣다가 모르면 빠꾸하고(back), 빠꾸하고 고맙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 불란서에서 학위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 명강의야. 기가 막혀.

이재원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교수들이 해당 대학이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했는가 사실 여부보다, 교수가 가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위와 학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자신의 공부도 가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의미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를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로, 자신은 뛰어난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진수받는 ‘학생’으로 설정하면서, 위계화된 ‘교수-학습자’ 관계를 스스로 재생산해낸다.

제도화된 가치에 따른 학습의 위계화는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이루어지는 형식학습을 가치 있는 학습이고 의미 있는 일로, 나머지는 무의미한 일로 만들기도 한다. 이재원은 형식교육기관에 소속됨으로써 학생 “신분”이 되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것을 ‘체대로 공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유롭게 책을 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7시에 와. 그 사람들도 연중무휴야. 두 사람은 졸업을 했어. 졸업하고 학업을 계속 안 해. 앉아가지고 무슨 책을 가지고 와서 봐. 내가 답답해

서 왜 학생 신분이 돼서 시험도 보고 그러지, 왜 아무 책이나 와서 보고 그러냐고. (선생님도 그 분들처럼 혼자 자유롭게 책보고 싶진 않으세요?) 아니, 그게 무의미한 인생이지. 난 그래도 목표가 있잖아. 너 뭐야? 너 신분이 뭐야? 나 학생이요. 나 무직자요 이러지 않잖아.

학생 신분 유지를 ‘제대로 된 공부’로 등치시키고, ‘학업’과 학습을 동일시하는 것은 학교 중심의 제도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이재원은 전시대학 졸업 후 60대 말에 A원격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긴 시간을 “공부와 거리가 멀어진 시기”, 환경에 의해 “공부와 단절”된 시기로 규정하였다. 삶과 일터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공부’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형식학습에 ‘제대로 된 공부’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는 노인기 학생의 신분으로 대학 공부에 몰입하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재원은 노인기에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에 몰입하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숙명”으로 해석하며, 그 근거로 생애 초기 학구적인 가정 분위기와 학교에서의 성공 경험을 들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에서 대학을 다닌 삼촌들 덕분에 그는 유년시절부터 국내외 많은 문학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대학은 당연히 가는 곳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대학을 안 간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고, 고등교육까지 받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는 생애초기 학교에서의 성공경험과 노인기 대학 공부를 연결하여 자신은 ‘공부가 숙명인 사람’이라는 ‘전기적 학습자 정체성’(Illeris, 2014)과 “공부는 내 편”이라는 ‘전기적 자기논리’(Alheit & Dausien, 2007)를 만들어냈다.

나는 공부와 숙명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어. 나는 자랄 때 환경이 공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 나는 소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을 했지. 그니까 공부는 하여튼 내 편이야. ...나는 자신감이 있어. 지금 불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중국어를 하려고 해. 그러다가 100세 되겠지.

이재원은 자신의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공부가 숙명인 사람’인데, 성인기에 “공부와 단절”됐던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노인기가 되어 다시 대학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자신에게 당연한 삶으로 해석하였다. 동시에, 그는 어릴 적부터 책을 멀리하고 공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에 가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생애초기 학교에서의 성공경험과 제도화된 학습의 위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고, 이를 통해 대학 ‘공부 중독’ 삶의 정당화와 의미부여가 이루어졌다.

3. 제도가 주는 안정감 : 대학, 무위의 공포로부터 도피처

'공부 중독'은 복잡한 사태로, 단순히 순수한 지식에 대한 욕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지식욕'이라기보다, 제도화된 기관이 한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제공하는 깊은 안정감과 안도감과 연결되어 있다. 은퇴를 일에서 여가로 이행(work to leisur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80대 노인 이재원이 실제로 부딪치는 현실은 낭만적인 삶의 여유가 아닌 무위(無爲)에 대한 깊은 공포감이었다.

나는 17년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할 일, 정말 할 일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A원격대학)에 매달리는 거야. ... 국회의원들 4, 5선 하다가 국회의장하고 은퇴한 이 ○○, 김○○ 이런 사람들 다 80, 90이야. 그런 사람들 뭐 하면서 사는 지 아주 궁금해. 60전까지 활발히 움직이다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 그 40년 동안 할 일이 없어.

무위의 공포는 곧 자아의 추락에 대한 공포를 의미한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품위와 자존감을 지킬 자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재원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만들어내는 탐골공원의 거대한 군상들을 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저런 인생으로 추락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 군집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다행히" A원격대학을 발견했다. 대학의 의미는 탐골공원 혹은 재향군인회 회관과의 대비 속에서 도출이 되었다. 이재원 자신은 대학에서 소설을 읽으며, 한 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대학은 무위의 공포에서 달아나 가장 고상하게 노인기를 보낼 수 있는 삶의 도피처이자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등지와 같았다. 그는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대학이라는 등지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

나보고 뭐 하러 고생스럽게 학교 다니냐 그래. 여기 와서 부담 없이 바둑 두고, 장기나 두지. 나보고 미친 놈이래. 나는 그 사람들 인생이 허무하다고 봐. 그래도 나는 여기 와서 소설 읽잖아 ...나는 A원격대학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궁금하고 무서워. 자살했을지도 몰라. 내 경우는 대학에서 이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야, 내 노후를. 여기서 세월을 흘러 보내면서 100살까지 가겠지. 나는 A원격대학에서 종말을 맞는 거야.

이재원은 소설을 읽는 것과 '공부'를 구별하고, 이 나이에 프랑스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소

설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평가절하하다가도, 탑골공원과 재향군인회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대학에서 문학작품 읽는 것의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학기 프랑스 단편소설 과목을 듣는데, 그 소설 내용들이 “기가 막힌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읽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열거하였다. 나아가,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부르며, “대학이 없으면 참 한심한 인생”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이라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문학과 학문이라는 고상한 가치를 상징하는 대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는 대학 밖 무위와 무의미의 세계로부터 보호받고 소속감과 안정감, 안도감을 느낀다. 제도의 자장(磁場)은 인간의 내면의 심층에 작동하고, 공부 중독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17년의 시간을 통해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고상한 삶의 도피처, 안전한 등지로서 ‘장소성’을 획득해나갔는데, 나아가 장소화는 ‘영토화’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영토화라는 개념은 원래 동물 행동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달은 살아가기 위해 나무를 가져다 집을 짓고 자신의 영토를 구축하고, 여러 사물들에 접촉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물들을 지배하는 어떤 코드를 작동시켜 영토화를 유지한다(이진경, 2002). 비슷하게, 이재원도 대학 학습관의 구석 특정 자리를 자신의 고정석으로 하고 자기 자리에 출퇴근 시간을 적은 달력, 공부계획이 담긴 일정표,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붙여놓고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한다. 인터넷 강의를 혼자 듣고, 이 자리에서 공부할 뿐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코드는 고립이자 시험공부에 최적화된 ‘독서실화’이다. 이 고립된 자신만의 ‘독서실’에서 그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안전감을 느낀다.

난 여기 중독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편해. 어디 움직이기가 싫어. 왔다 갔다 하기 싫고. 여기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공부하지. 난 다른 사람들과 얘기 안 해.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누가 얘기해줘? 그리고 난 말이야, 친구 사귀고,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혼자 인터넷 강의 듣는다든가, 혼자 신문 본다든가, 혼자 책 본다든가, 사전 찾고. 조용히. 그걸로 만족이야. 내가 그게 아주 굳어졌어.

제도화된 교육기관 공간 안에서 느끼는 이 안정감과 안도감은 그의 개인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다. 이재원의 형도 북한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이지만, 그의 형은 집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지내며 이재원이 어떻게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에게 학교는 안정감이 아니라 답답함이기 때문이다. 이재원은 자신의 성격이 규칙적이고 “규격화”된 삶과 잘 맞는다고 보았다. 이는 타고난 성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장장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굳어진 성향이기도 하다.

형하고 나는 성격 차이가 있지. 난 성격이 좀 밀리턴트(militant)하지. 우리 형은 군을 아주 싫어했어. 근데 나는 어릴 적부터 군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 그런 생각이 들어. ... 사업을 할 때도 사업 아이템을 잡고 오더를 따오고 이런 거는 우리 형이 했고, 나는 공장 관리를 했다고. 공장장은 군대를 통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야. 타임 테이블에 따라 딱딱 움직여야 돼. 차질이 생기면 배를 놓쳐서 안 돼. 그런 수출을 10년 넘게 했던 말이야. 할 일 정해져있고, 할 일을 딱딱 시키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관리하고. 나는 그런 거에 딱 규격화됐어. 규격화됐다고.

이재원에게 학교는 군대,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시간에 따라 정해진 과업을 수행해내는 '규격화된 삶'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개인의 개성보다 집단에 소속되고, 그 집단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느끼는 안정감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 대학 공부 간에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4. '공부 중독'의 이중성 : 중독과 자기 최면 사이

노인기 공부 중독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노인기 학습은 필연적으로 영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영석, 2010). 생의 종말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 다가오는 슬픔과 허무의 문제를 다루고, 죽음을 삶으로 끌어들이며 역설적으로 생명을 쇄신하는 작업(김찬호, 2009)은 노인기 학습의 핵심이다. 이재원은 또래 노인에 비해 건강한 편이지만, 그 역시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한 해가 다르다. 1년 반에 걸쳐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면담에서 이재원은 첫 면담 때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든다고 하였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데 "공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의 '공부'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재원은 자신이 공부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이때 공부는 '시험 공부'이다. 시험 공부는 분명히 중독성이 있었다. 시험은 성적을 통해 즉각적인 공부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는 시험 결과를 통해 80대 쇠락해가는 육신과 무력감 속에서 생의 활력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기 자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어디에 있을까? 시험을 통해 맞보는 그 유능감과 살아있다는 생의 감각은 그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시험이 있어서 힘들지만 활력을 줘. 출석 수업하고 일주일 뒤에 중간 시험이 있고,

좀 있으면 기말 시험이 있어. 시험 보고 점수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딱 30점이 나왔다,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 ...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건 아직도 내가 젊구나, 살아있구나, 페이드 어웨이(fade away)하는 건 아니다.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걸 점수로 느끼고.

너는 이 성취의 쾌감을 기억한다(Robertson, 2013). 시험을 통한 자기입증은 노인에게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넘어 엘리트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당분간은 계속 이런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이 활력과 유능감은 일시적이며, 그의 저 깊은 마음의 풍경은 여전히 우울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공허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험공부는 본질적으로 그의 삶과 분리되어 있었다. 연중무휴 스스로 “중독”으로 부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남는 게 없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바로 시험 공부였다.

시험 보면 다 나가. 그 다음 날. 다 잊어버려. 법학, 경제학도 그러고. 나머지 일본 어니 뭐니 그거 다 잊어버려. 불어도 이거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시험공부는 허전함과 죽음의 두려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기력했다. 공부와 자신의 삶이 분리되면서 공허감이 커지면, 내면의 불편한 감정이나 목소리를 잊고자 다시 시험공부에 전념한다. 허전함을 달랠 길이 공부에 매달려 잊어버리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 행동의 기저에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는 시도가 놓여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음주나 쇼팽, 게임 등의 방식으로 자의식과 자기관찰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이재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대학 학위 취득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공부로 공허한 마음을 잊고자 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공부 중독의 모순이 존재한다. 중독은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의지를 동반하지 않고 그 세계에 몰입되지만, 이재원은 허전함을 잊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작동시켜 공부에 몰입한다.

60에서 100세까지 40년 동안, 이게 말이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같지가 않아. 아! 죽지 않으니까 ‘stay alive’하는 거 같아. 난다 긴다 뭐 해도 인간은 한 줌 흙이 돼. 내가 85살이다. 10년 후면 난 국군묘지에 가는구나. 너무 허전해. ... (허전함을) 잊어버려. 공부에 매달리면서 잊어버려.

이재원의 공부 중독은 ‘매달린다’는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중독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과 중독되고 싶은 소망에 따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부 중독이 아니라 '나는 공부에 중독되었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다. 그는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사회적 관계 혹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고 소통하기보다, '공부 중독'을 통해 외면하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인기 삶의 과제를 '공부 중독'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의 선택은 그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한 신념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행위들로 구성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A 아니면 B'라는 이분법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B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싫어도 따라야할 A라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박성원, 2009). 이재원은 노인기 삶의 방식이 언뜻 보면 잡다한 많은 것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향군인회 스타일"과 "나 같은 스타일" 딱 두 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재향군인회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싫으나 좋으나 대학 불박이 학습자로 사는 삶 밖에 남아있지 않다. 'A 아니면 B'가 아니라 'A 말고도 B, C, D, E'를 선택할 수 있는 노인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노인기 학습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시험 공부'는 타인 혹은 사회와 접촉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상상하는 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는 '공부=시험공부'라는 등식을 깨버릴 기회를 찾지 못했다.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상징적,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통틀어 다음 세대에 남길 의미 있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할 때, 노인기 자아의 성숙이 이루어진다(Kaufman, 1986). 그러나 이재원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고 자신의 생애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 내가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능력은 있어. 있는데, 내 손녀, 내 딸이 자기 딸 영어회화를 해달라고 해. 그거는 해주고 싶어. 때가 되면. 근데 남한테까지 뭘 서브(serve)해? 난 봉사는 생각 없어.

행복? 행복했던 기억은 없고. 제일 후회스러운 거는 김일성이가 6.25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 6.25가 없었더라면 난 순탄하게 불란서에 유명한 수학자 저리가라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뻔했는데,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보람 있는 인생일 뻔 했는데. 가다가 탁 낭떠러지로 떨어졌잖아. 김일성이 때문에.

공부에 중독된 삶의 패턴은 공부 이후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다. 특정 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학과에 등록하고 졸업하는 과정의 반복하는 것이다. 공부 중독은 인지적 학습에 몰

입하면서 허전함을 잊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학습이 자신의 내면과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기에 공허감은 더 커지고 이를 잊기 위해 자신을 더 공부에 중독 시켜야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에서 형식학습에 몰입하는 노인학습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의 성격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이때 ‘공부’는 학생 신분이 되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대학 ‘공부 중독’은 실제로 ‘공부’ 중독이 아닌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를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활용하여 자아를 지키고 관리한다는 통제감,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화, 대학이라는 기관이 주는 깊은 안정감과 안도감, 시험을 통한 자기유능감에 대한 ‘중독’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중독이라기보다 공허감을 잊기 위해 중독되었다고 믿고 싶은 자기최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노인기 대학 형식학습에의 몰입은 단순히 향학열이나 지적 욕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가 갖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은 과거 학습 경험과 한국사회의 학습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매뉴얼화된 공부, 학교화된 공부”가 지배적인 학습 양식이다(엄기호, 하지현, 2015). “삶의 각 단계에서 주요 학습 경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러한 경험은 학교에서 기인하는가? 직장에서의 경험인가, 성인기 자발적인 학습이나 여가생활 등에서 오는가? 중요한 학습경험의 실체와 형태,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Antikainen, 2007:275)” 한국인의 주요한 학습경험은 학교에서 기인하며, 학교에서 형성한 학습에 대한 이미지, ‘공부는 시험공부’라는 등식을 깰 수 있는 기회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다.

위계화된 학교시스템이 여전히 다른 종류의 학습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면서, 학교시스템을 통해 학점, 학위, 자격증 등을 획득할 때에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얻는 것은 ‘학습’의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제도화된 가치에 따른 차별적 구별 짓기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이루어지는 형식학습은 의미 있는 일로, 학교 시스템 밖, 다시 말해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독학이나 자력학습(강대중, 최선주,

이승협, 2012)은 무의미한 일로 인식하게 만든다. 매우 자기주도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학습조차, 그 세계와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으며,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과 배우는 방식은 대부분 특정한 시기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Jarvis, 1987;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이재원의 자신의 학습방식에 대한 정당화와 타인과의 구별짓기는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제도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평생학습패턴 중 한 양상으로 학위중심 평생학습패턴이 존재한다.

둘째, 이 연구는 노인기 '공부 중독'은 제도적 장치와 개인의 성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성격은 단순히 타고난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 근대화라는 거시적 사회맥락과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일 경험의 성격과 결합되어 있다. 연구참여자의 생애경로는 '성인초기까지 형식교육에서의 높은 성취-성인기 노동시장에서 일에 몰입-은퇴 후 형식교육에 몰입'이라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의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연구참여자는 30대에서 60대까지 수출 및 수입 사업으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한국경제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급성장하던 시기이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과정 속에서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고(장경섭, 2001),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주어진 일정대로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시간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연구참여자 역시 공장장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짜여진 과업을 달성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익숙해졌다.

압축적 근대화와 계획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주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은 자기규율(self-regulation)로 협소화 되었다. 자기주도성의 협소화는 일터뿐만 아니라, 학습의 장에서도 나타났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일정한 학습계획에 따라 자기를 관리하고 시험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과정은 공장에서의 일 경험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노인기 형식교육기관에 대한 선호가 단순히 학력수준이나 과거 학교에서의 성공경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일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재원으로 대표되는 형식학습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고, 제도화된 학습관리장치를 자아의 테크놀로지로 활용하는 학습자 집단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이경희와 박성희(2009)는 노인학습자를 평생학습자, 문화창조자, 생산적 학습자, 생애사적 학습자 4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김진화 외(2013)는 평생학습자 군집 유형을 무관심, 소극적, 의존적, 주도적, 창조적 평생학습자 등 5개로 개념화하였다. 이재원은 기존의 분류 어디에도 잘 맞지 않는 독특한 학습자로, 이 연구는 이러한 학습자를 Vaill(1996)이 언급한 "제도화된 학습자

(institutionalized learner)”로 명명한다. 제도화된 학습자의 ‘자기’는 제도와 자아의 견고한 결합 속에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제도화된 학습자는 ‘자기’를 개념화하고 학습을 의미화하는 방식이 제도적 학습관리장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Bröckling(2014:10)의 표현을 빌리면, 제도화된 학습자는 제도적 학습관리장치를 “자신을 작업하기 위한 일상적 훈련이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하는 진리생성기(Wahrheitsgenerator)”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추구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된 학습과 아닌 것을 판단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판단 기준을 삼는 학습자이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개념 자체가 제도적 장치 속에서 규정되고 내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된 학습자 개념은 ‘왜 어떤 성인 혹은 노인학습자의 경우에 형식교육(formal adult education)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고, 다른 형태의 학습을 거부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교육·훈련에의 ‘참여와 비참여’라는 이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Gorard et al.(1998, 2001)의 평생학습론적 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형식교육의 참여, 다시 말해 학위중심 평생학습이라는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은경(2014:22)은 국내 평생교육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하면서 “평생교육학 연구 대상의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론 연구 영역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를 중심 논의로 한 저자 집단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학습관리 장치와 이에 대한 학습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존재 양식과 세부 범주화를 하는 추후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넷째, 이 연구는 대학 교육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기 대학 공부 중독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노화에 따른 자아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성숙하게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문화적 황무지(정진웅, 2003)에서 살아가야하는 열악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대학은 노인기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자, 유의미한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에게 대학이 무위의 공포 속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현실세계에서 도피하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등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소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역할은 심리적 등지 역할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안전한 등지 안에서 공부만 계속하는 삶은 엄기호, 하지현(2015)이 지적한 삶이 공부의 식민지가 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공부는 삶의 보조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공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었어요. 삶의 영역에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배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움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배움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학원 가서 깔끔하고 매끄럽게 배우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중독인데 공부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 '공부해서 뭘 할까'가 아니라 '다음 공부는 뭘 할까'이죠(엄기호, 하지현, 2015:127).

연구참여자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 현재 대학 공부간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목해 보아야할 지점이다. 대학은 이런 '공부 중독'이나 '공부만 하는 삶'에 균열을 내거나, 공부와 삶, 사회를 잇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해도 대학이라는 공간에 머물고, 졸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공부방법의 동일성은 지식의 견지에서 존재한다. Houle(1961)의 학습동기 분류 중 '학습지향성'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지식이 어떤 성격의 지식인가 하는 점이다. 객관적이고 정제된 지식, 선다형 문제출제가 가능한 지식들, 쉽게 암기가 가능한 지식들은 공부를 양화하여 공부계획을 세워 관리하기 쉬운 형태이며, '무엇인가 많이 공부했다'는 뿌듯함을 주고, 시험을 통해 자신의 암기력을 확인함으로써 유능감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인지적 유능감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인기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학은 단순히 불안과 공허함을 인지적 학습을 통해 잊게 하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깊고 정직한 성찰과 '삶의 의미'를 재해석해내는 문화적 자원들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중, 최선주, 이승협(2012).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의 학습생활 연구: '아고라 경제토론폰방 고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8(4). 33-63.
- 김신일(2005). 학습시대의 교육학 패러다임. 김신일, 박부권(편).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김영석(2010). 노인 학습에서 영성이 미치는 영향과 영성을 고려한 노인 교수법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6(2). 23-46.
- 김은경(2014).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한 국내 평생교육학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0(3). 1-30.
- 김진화, 전하영, 강은이, 정민주(2013). 평생학습자 유형의 군집화와 특성프로파일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271-300.
- 김찬호(2009). **생애의 발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찬호(2014).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태중, 전주성(2014). 전기학습 관점에서의 초고령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갖는 의미. **평생학습사회** 10(4). 1-28.
- 김효경, 윤창국(2014).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계 변화과정과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20(2). 1-33.
- 동아일보(2015.5.23). 한국 노인빈곤율 49.6% OECD 1위.
<http://news.donga.com/rel/3/all/20150523/71426333/1> 에서 2015. 11. 4 인출
- 박경숙(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박성원(2009). 한국은 왜 미래학의 불모지가 됐는가.
http://www.donga.com/docs/magazine/print.php?mgz_part=shin&n=200907020500006
에서 2014. 5. 20 인출
- 박성희(2010). 노년기의 자기정체성 만들기와 비판적 제라고지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6(4). 55-79.
- 박응희(2009). 노인교육 시장분석을 위한 노인학습자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3). 137-158.
- 박응희, 이병준(2009). 노인교육 담론에 대한 교육학적 탐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1). 21-38.
- 신미식(2002).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8(1). 121-151
- 신미식(2007). 평생교육으로서 한국노인교육의 발전방향: 노인교육담론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1). 1-24.

- 엄기호, 하지현(2015). **공부 중독**. 파주: 위고.
- 엄미란, 최은수(2012). 산업대학 늦깎이 대학생의 경험학습 의미 탐색. **평생교육 · HRD연구** 8(1). 27-55.
- 오근재(2014). **퇴적공간 : 왜 노인들은 그곳에 갇혔는가**. 서울: 민음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경희, 박성희(2009). 노인의 학습경험에서 도출한 노인완성학습으로서의 노인학습 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1). 1-29.
- 이정희, 안영식(2007). 만학도의 대학생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 이종일(2012).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도화된 인종주의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19(2). 33-51.
- 이진경(2002). **노마디즘: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서울: 휴머니스트.
-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가족과 문화** 13(1). 1-29
- 장소은, 이병준(2014). 노인동아리의 의례적 학습과정 연구: 탁구동아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2). 63-88.
- 전제아, 김원경(2014). 노인교육 관련 연구에 나타난 학습자로서의 노인. **평생학습사회** 10(3). 1-25.
- 정경순(2006).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평생교육의 제도화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2(3). 1-22.
- 정경희(2003). 노인들은 왜 자신을 부정하는가: 격변기 한국사회에서의 노인정체성의 형성과정. **당대비평** 22. 306-318.
- 정민승(2010).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에피스테메.
- 정연희, 정혜령, 최선주(2015). **성인학습자의 참여고취를 위한 대학평생교육의 특성과 조건 분석**.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정진웅(2003). 노년의 꿈, 타자화된 노년과 공상적 노년담론을 넘어서. **당대비평** 22. 319-329
- 최선주(2013).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국대학신문(2015.10.11). 평생교육시대, 은퇴자도 대학생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1923> 에서 2015. 11. 4 인출
- 한상길(2011). 중년 성인대학생의 배움 활동에 비취본 삶의 의미 재구성. **Andragogy Today** 14(1). 39-70.
- 한승희(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승희, 이은정(2016). 고등교육 보편화와 체제적 복잡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의 화학적 결합. **평생학습사회** 12(1). 1-31.

- 홍아정(2010). 성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48(3). 159-186.
- Alheit, P. & Dausien, B. (2007). Lifelong Learning and Biography: A Competitive Dynamic Between the Macro- and the Micro Level of Education. In L. West, P. Alheit, A. S. Andersen, B. Merrill (eds.), *Using Biographical and Life History Approaches in the Study of Adult and Lifelong Learning: European Perspectives*. New York: Peter Lang. 57-70.
- Antikainen, A. (2007). *Transforming a Learning Society: The Case of Finland*. Bern: Peter Lang
- Barley, S. R. & Tolbert, P. S. (1997).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ation: Studying the links between action and institution. *Organization Studies*, 18(1), 93-117.
- Belzer, A.(2004). "It's not like normal school": The role of prior learning contexts in adult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55(1), 41-59.
- Bröckling, U. 김주호 역(2014). *기업가적 자아: 주체화 형식의 사회학*. 파주: 한울.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 Foucault, M. 이희원 역(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서울: 동문선.
- Gorard, S., Rees, G., Fevre, R., & Furlong, J. (1998). Learning trajectories: Travelling towards a learning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7(6), 400-410.
- Gorard, S., Rees, G., Fevre, R., & Welland, T. (2001). Lifelong learning trajectories: some voices of those 'in transit'.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3), 169-187.
- Helterbran, V. R. (2016). Lessons in lifelong learning: Earning a bachelor's degree in retirement. *Adult Learning*, DOI:10.1177/1045159516643942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lleris, K. (2014). *Transformative learning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 Illich, I. 심정보 역(2004). *학교없는 사회*. 서울: 미토
- Jamieson, A. (2007). Higher education study in later life: What is the point?. *Ageing and Society*, 27, 363-384.
- Jarvis, P. (1987). *Adult Learning in the Social Context*. London: Croom Helm.
- Kaufman, S. (1986). *The Ageless self: Sources of meaning in late life*. Madison: University

- of Wisconsin Press.
- Kim, A., & Merriam, S. B. (2004). Motivations for learning among older adults in a learning in retirement institute. *Educational Gerontology*, 30(6), 441-455.
- Lee, M. Y. (2003). A critical analysis of andragogy: The perspective of foreign-born adult learners. In L. M. Baumgartner, M. Y. Lee, S. Birden, & D. Flowers (Eds), *Adult Learning Theory: A Primer*.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11-16.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 (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New York: Jossey-Bass
- Robertson, I. 이경식 역(2013). **승자의 뇌**. 서울: RHK.
- Rubenson, K. (1998). Adults' readiness to learn: Questioning lifelong learning for all. *Proceedings of the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No. 39. San Antonio: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and Texas A&M University. 257-262.
- Scala, M. A. (1996). Going back to school: Participation motives and experiences of older adults in an undergraduate classroom. *Educational Gerontology*, 22(8), 747 - 773.
- Schugurensky, D (2000). The forms of informal learning: Towards a conceptualization of the field, NALL Working Paper #19 - 2000,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Vaill, P. B. (1996). *Learning as a way of be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Sage.

· 논문 접수 2016. 5. 1 / 게재 승인 6. 17

· 최선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 BK 조교수를 거쳐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재직하고 있음. 연구 관심 분야는 학교경험과 평생학습패턴, 학습생애사, 사회적 학습관리장치 등임.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the Phenomenon of ‘Study Addiction’ among Older Adult College Students

Choi, Seon Joo(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s older adults become increasingly visible in Korea’s higher education landscape, numer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lderly in colleges, emphasizing the positive changes they experience during their studie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previous studies have overemphasized the self-direction of learners and have used the term “study,” which carries multiple meanings, ambiguousl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henomenon of ‘study addiction’ among older adult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thought-behavior, and the institutional nature of formal education.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man in his mid-eighties studying for his sixth bachelor’s degree at ‘A’ cyber university, the paper defines “study” as being a student and taking exams and “study addiction” as the addiction to the sense of self-control that one gains by transforming institutionalized learning management apparatus into technologies of the self. “Study addiction” also represents a way for the participant to justify his way of life, and form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fer him a sense of security that protects him from his fear of a meaningless life outside of academic activ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addiction” is another name for autohypnosis. By placing this phenomenon within the wider socio-cultural contexts of Korean society, this paper discusses a new category of learners –“institutionalized learners”– and the degree-focused lifelong learning pattern.

* Key words: college, study addiction, older adult learners, learning management apparatus, degree-focused lifelong learning pattern